

대한양계협회 소식

83년도 하계양계강습회

광주, 대구, 부산, 제주에서 성황리 개최

전국 닭요리 강습회도 각도청 소재지에서

- 8월 1일부터 연인원 1천 3백 여명 수강 -



△지역 양계인의 인화단결과 새로운 양계기술정보전달을 위한 '83 하계 양계강습회는 53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전국의 양계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양계기술정보 전달과 양계인의 인화단결을 위한 83년도 하계양계강습회와 쇠고기 편중의 육류소비구조를 개선키위해 다양한 닭고기 대중요리법을 널리 보

급해 닭고기소비를 증대하기 위한 전국닭고기요리 강습회가 지난 8월 1일부터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제주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83년도 하계양계강습회는 본회가 주최하고 한

국사료협회(회장 정 태원)가 후원하여 광주시(8월 1일, 광주카톨릭센터), 대구시(8월 2일, 대구명성예식장), 부산시(8월 3일, 부산동래구 온천예식장), 제주시(8월 5일, 제주KAL호텔 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되어 연인원 5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하계강습회는 본회 각 도지부로 부터 하계 강습회 개최신청을 사전에 접수하여 개최일자, 강의내용과 강사를 선정해 강사로는 서울농대 오 봉국교수(양계산업의 발전방향 및 안정화방안), 진국대 축대 오 세정교수(육용종계 및 실용계 사양관리 요령),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남궁선과장(ILT 및 ND의 방역대책),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박 영인지부장(브로일러 계열화 및 사료곡물가격전망)이 각각 초빙되었다.

지방양계인들은 무더위중에서도 새로운 기술 습득과 양계 산업발전의 여망속에 개최지 마다 좌석을 꽂 메우는 관심을 나타내 광주에 100여명, 대구에 170명, 부산에 150여명, 제주에 110명 등이 참석해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제고방안, 양계업의 전망 등 많은 질의응답을 나누었다.

이번 강습회에는 본회 회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 양계관련 사료공장, 동물약품업자, 대군양계업자, 기계기구업자와 도청, 시청의 관계공무원, 대학교수 등이 참석 그 열기가 대단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강습회개최를 위해 본회 임원, 부회장, 각도지부, 분회에서는 물심양면의 성원을 아끼지 않아 양계업계 인화단결의 한 면목을 보는 듯 했다.

이번 '83 하계양계강습회 강의 내용은 지난호 월간양계에 전부 게재한 바 있다.

한편 닭고기·계란요리 강습회는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주최(강사: 왕 준연 회장의 2인)로 본회와 미국사료곡물협회가 공동후원하여 각도 별로 전남지역(8월 1일, 광주 여성회관), 전북 지역(8월 2일, 전주여성회관), 충남지역(8월



△800여명이 모여 현지 매스콤의 관심을 집중시킨 닭요리 강습회

3일, 대전 왕 준연요리학원), 경북지역(8월 4일, 대구 서 봉순요리학원)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후라이치킨, 닭 새우젓 볶음 등 가정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10여종의 닭고기 계란요리를 소개해 각지방의 닭고기·계란소비촉진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지역의 여성단체회원, 각도 부녀과장, 시군 부녀아동계장, 농촌지도소 식생활개선 담당직원, 대량급식업소 조리사, 가정주부 등 연인원 800여명이 동원되는 대성황을 보이는 한편 주부들이 닭고기요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닭고기소비에 밝은 전망을 보였다.

현지 매스콤의 관심도도 높아 각도의 지방KB S-TV, MBC-TV 여성프로그램, 전남일보, 전북일보, 대전일보 등 지방신문에 닭고기요리에 대한 방영과 기사가 각각 보도되었고 특히 대전KBS에서는 1시간 짜리 특집프로그램(닭고기 장점, 요리법)을 방영한 바 있다.

이번 닭고기·계란요리 강습회를 위하여 교재용 및 홍보용 닭고기요리 팸플렛을 10만부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이 팸플렛에는 닭고기의 장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닭고기요리 10점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요리강습회는 닭고기의 경제적 영양학적 우수성을 널리 알려 닭고기소비의 저변을 확대 하는데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된 바 있어 본회는 앞으로 축협과 협조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소비홍보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8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사료가격 전망에 대한 세미나도 가져-



(김 진의 이사)

제 8회 채란분과위원회가 8월16일 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있었다.

김 진의 (대한제당)이사는 사료가격전망에 대한 세미나에서 「현재로서는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가격의 인상요인이 매우 많다」고 분석했다. 그 예로서 작년 10월 미국이 PIK를 실시한 이후 옥수수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금년 이상고

온으로 인하여 7월 이후 미국 옥수수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두박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때 내년 수확기까지는 계속 상승될 것이며 한국의 경우에도 추석 이후 가격 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 황 인옥전무는 협회 주요업무보고에서 '84 국고보조관계 예산편성이 완료되었다고 전하고, GP센타 설치문제, 하계순회 양계 및 요리강습회, 검정소부지 조성공사 입찰, 도계 유통 세미나 개최문제 등을 설명했다.

안건토의에서는 난가고시에 있어서 가고시제를 계속할 경우 외관상 양계업이 호황인 것으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실제가격고시를 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난가고시를 특정인이 좌지우지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GP센타 설치에 현재 계속 추진중이며 크게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하나는 1차적으로 적은 물량이나마 시도하여 수퍼 등을 통해 판매한 후 국민의 인식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과, 다른 하나는 서울시 물량의 반 정도(약 200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가격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계분의 비료적 가치와 이용문제, 닭고기 부위 및 부분육의 통일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닭 인공수정강습회 개최예정

본회는 '83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11월경 (예정)중계장 및 부화장을 대상으로 닭 인공수정 강습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강습회는 닭인공수정의 이론과 강도높은 실습을 통해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월 채란분과 위원회

진행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발표할 예정인데 관심있는 회원의 참가를 바라며 강습회 개최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본회편집국(전화(752) 3571~2)으로 연락해 주면 검토하여 강습회 프로그램에 참조할 예정이다.

브로일러 계열화 세미나 개최

- 미국의 계열화전문가 강사로 초빙 -

본회는 미국사료곡물협회의 협조로 브로일러 계열화에 대한 세미나를 오는 9월 23일 전주, 26일 서울, 27일 대구 등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양계산업발전을 위하여는 브로일러산업의 계열화가 필수적인 현실에 비추어 한국적 문제점을 파악,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 미국의 National Broiler Council (미국 브로일러협회; 계열화주체회사 중심의 전국협회)의 기술, 홍보, 교육, 조사담당 William P. Roenigk 이사를 초빙해서 계열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촉구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추진방향 모색 등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브로일러 계열화에 대한 관심있는 사료업자, 부화장, 관계공무원, 관련업체들의 참석을 바란다.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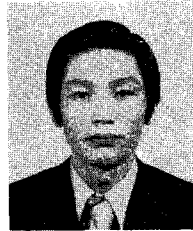
- 9월 23일(금) 14:00 전주(장소 미정)
- 9월 26일(월) 14:00 서울 미국문화원
- 9월 27일(화) 14:00 대구 축협회의실(예정)

육계 생산자 월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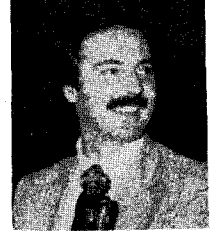
- 닭고기 소분포장 세미나 개최 -

제 8회 육계 생산자 월례회가 지난 8월 2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앞서 닭고기 소분, 발골 및 포장방법



(이찬모 상무)



(스티블링 고문)

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을 비롯해 각 시도 축협 관계자와 육가공업체 인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의 김 범래과장은 우리나라 도계육 정착과 더불어 도계위생처리와 유통위생에 대하여 업계참여자 전원이 책임적인 입장에서 감당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세미나에 들어가 천호통산의 이 찬모 상무는 한국 실정과 단백질원을 고려해 볼때 사료효율이 높은 닭고기가 다른 육류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다고 했으며, 유통질서와 소비 촉진, 도계품의 유통 규격, 해체육 및 포장방법에 대해 해설과 병행하여 부분육과 정육의 이용에 대한 멋진 시범이 있었다.



△ 닭고기 소분, 발골, 포장 세미나가 개최된 육계 생산자 월례회

또한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 식품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TEEPAK 회사의 고문직에 있는 STRIBLING 씨는 「한국의 육가공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전제한 후 슬라이드를 통하여 계육가공과 용도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육가공 제조과정에 대한 영화상영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수강했으며 관심도와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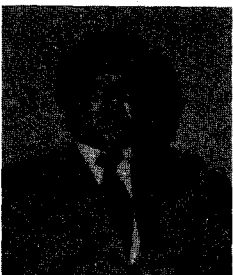
이어서 열린 육계생산자 월례회에서는 이번 무더위로 종계가 상당히 폐사되었으며 입추는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고 지적되었다.

닭값은 물량이 부족현상을 보이더라도 값은 계속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년 가을 일본 양계 산업 시찰단모집에 대하여는 9월 15일까지 본회로 신청할 것과 시찰단은 10명 내외로 하며 시기는 10월 하순경에 있을 예정계획이 공지되었다.

본회 충남도지부 결성

-지부장에 이 건남씨, 100여명 참석-



충남도 지부장에
선출된 이건남 사장

충남 양계인의 오랜 숙원이던 충남도지부 결성·창립총회가 지난 8월 13일 대전시민회관 소강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오후 1시에 시작된 총회에는 기존회원 42명, 신입회원 47명(축산협력회원 포함)등 89명의 회원과 관계인사 다수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회의진행순서에 따라 국민의례 및 경과보고와 신우식 충남도축정과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사회자(신기농장 최상무)로부터 1983년 8월 6일의 발기인모임에서 결의된 바에 의하여 이날 회의를 본회 임 덕성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주재할 것을 발표, 전회원이 박수로 환영하는 가운데 임 덕성국장이 임시 의장 자격으로 단상에 올랐다.

이후 임덕성 사무국장의 주제하에 임원선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이 결과 이진남(대전신기농장 대표)씨가 만장일치로 초대 지부장에 피선되었다.

이번 창립총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일부 계우회의 반대 등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충남도 양계인들은 지부결성에 적극 호응, 앞으로의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지부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선출된 임원진 및 분과위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 부 장: 이 건남
- 부지부장: 김 홍근, 김 홍영
- 감 사: 현 영권, 금 기원
- 운영위원: 송 영택, 김 봉한, 김 부흥, 윤 예중, 노 성하, 강 신갑, 안 계생
- 부화분과위원장: 나 영춘
- 채란분과위원장: 임 규범
- 육계분과위원장: 박 석화
- 종계분과위원장: 유 승배
- 감별분과위원장: 김 수환

한편 이번에 결성·창립된 충남도지부는 9월중에 열리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발족하게 된다.

● 대한양계협회소식

이상윤 회장 출국

본회 이 상윤회장은 대만 및 일본의 도계 산업을 시찰키위해 지난 8월 27일 출국하여 9월 초 귀국할 예정이다.

○ **평택분회 (분회장 이 상봉):** 8월 24일자로 본회 평택지부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변경전화: 평택 2-7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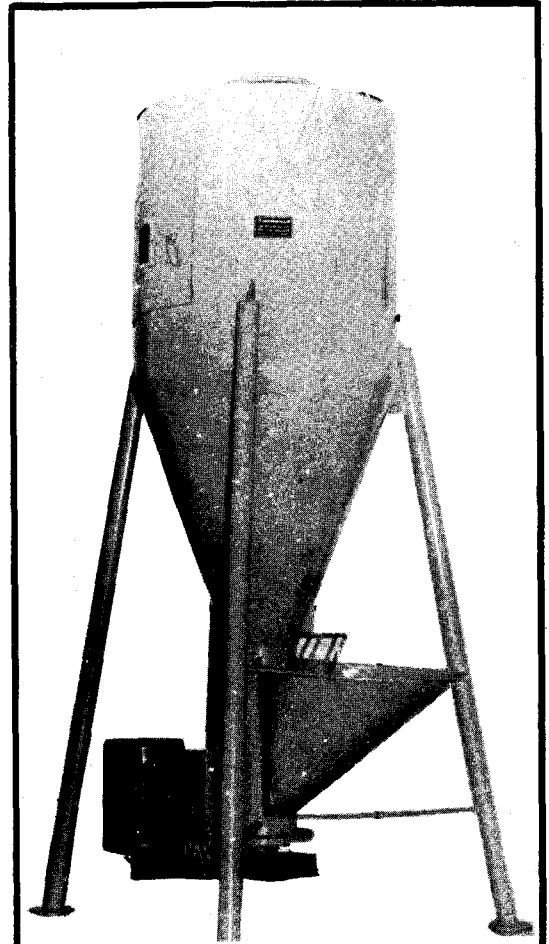
본회 자문위원, 임원, 회원 간담회 개최 - 8월 4일 부산에서 -

본회는 양계산업의 안정적발전과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8월 4일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소재 온천장호텔에서 자문위원, 임원, 회원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83하계양계강습회와 닭요리강습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개최된 이번 자문위원, 임원, 회원 간담회에서는 양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진보적이고도 건설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련만행 규탄대회 개최

천인공로할 소련의 KAL 민항기 격추사건에 즈음하여 본회를 위시한 축산회관의 축산단체 임직원 일동은 지난 9월 3일 지하회의실에 모여 야만적이고도 무자비한 소련의 만행을 규탄했다.

한편 경기도지역 양계인들은 9월 3일 11시 수원시 농협 2층 강당에 모여 이번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의 뜻을 기리는 묵념과 인류의 적 소련을 규탄하는 대회를 갖은 바 있다.



사료혼합기

과학적인 설계로 배합속도가 빠르고 배합이 정확하며 모타의 하부 장착으로 안정되게 가동됩니다.

100kg, 200kg, 기타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 1886